

커크 리치, <강요된 원시상태>

... 이 글에서 나는, 보호 프로젝트를 위해 수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일이 사실 오늘날 생태관광객들의 주요 목적지가 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별 이익이 되지 않음을 주장할 것이다. 보호의 욕구, 그리고 생태관광의 욕구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뿌리 깊은 냉소뿐만 아니라 계몽된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배타적 장소에 관한 19세기 식민주의적 관념이 채워져 있다. 생태관광 활동은 현지 사회에 장기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 현지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축출되거나, 자기 삶을 규제받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소규모 자연 중심 개발안에 기초한 미래만이 남아 있다. 이 모두는 보호주의적 꿈과 정신적 행복을 향한 서구의 낭만주의적 추구만을 만족시킬 뿐이다. ...

야생 보호구역이 현지 사회에 미치는 실제 영향

보호구역은 현재 5000여개 정도로, 지구상에서 3%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원, 야생보호구역, 성소들의 대다수는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 만들어진다. 남아메리카의 경우, 85%의 보호구역에 원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경우, 3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500개의 국립공원과 성소 안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 많은 보호구역들의 역사는 현지 사회 추방의 역사이자 점증하는 규제의 역사이다. 동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면서 세렌게티 초원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호구역으로 만들었던 보호주의자 버나드 그지멕(Bernard Grzimek)은 1960년대에 마사이 원주민을 그들의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그지멕은 국립공원이 효과를 보려면 원시적인 야생지역으로 고수되어야 하며 원주민을 포함해 어떤 사람도 그 안에 살면 안 된다고 믿었다. 탄자니아의 응고로고로산(Ngorongoro) 분화구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마사이족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개발을 위해 그 지역을 떠나라는 압력이나 권유를 받았다. 이후 그들은 적절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그들을 버랑 끝으로 몰아넣은 추방 조치는 광범위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

카메룬은 5분의 1이 넘는 땅이 공원에 바쳐진 상태이거나 그럴 준비 중에 있으며, 그 상당수는 생태관광에 사용되고 있다. 코럽(Korup) 국립공원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살던 126,000헥타르의 숲으로, 이 공원의 설립은 국제야생동물기금으로부터 경제적 개발과 보호를 통합한 모범적인 계획이라며 찬사를 받았다. 공원의 설립은 현지 사회의 이주를 뜻했고, 그 이주는 국제야생동물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러자 이주 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공원의 공공연한 목적을 위협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프레드 피어스(Fred Pearce)의 1999년 책 『녹색 침범』에서 한 목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공원은 백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들은 공원 내에서 여전히 사냥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다. 당국에서 우리 사람들을 사냥이란 죄목으로 갑자기 감옥에 보내기 전까지 우리는 공원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 그제야 우리는 우리 가축을 죽이고 있는 야생 동물을 사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왜 아무도 우리의 생각을 묻지 않는가?

현지 공동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그들의 삶은 심각하게 규제를 받는다. 세계야생동물기금은 사하라 사막 주변에 자연보호지역을 설립하는 데 관여했다. 그중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니제르의 사막 지역에 가까운 아이르 마시프에 있는 아이르 테네레 국립 자연보호구역이다. 세계야생동물기금과 니제르 정부는 3,000명의 그 지역 유목민들을 스위스 두 배 크기의 구역에 계속 살도록 놔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냥이나 가축 보호와 같은 활동의 통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 보호구역 내에서 모든 사냥은 금지되었고 자칼 등의 육식동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실질적인 희생이었다. 개발의 경우, 그 주요한 계획은 그 지역에 관광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세계야생동물기금의 한 대변인은 투아레그족이 거의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994년 세계야생동물기금은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채택했다. ‘그는 그의 우림을 파괴하고 있다. 그를 멈추기 위해 당신은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기금을 모으기 위해] 인류학자를 보내겠습니까?’ 환경보호주의에 대한 비판가 톤 디엣츠(Ton Dietz)는 이것이 새로운 환경 규범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현지 사회를 곤궁에 빠뜨리고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생태전체주의적 접근’이라며 비판한다. ...

생태관광의 문제

생태관광과 공동체 관광의 언어는 단지 보호와 보존을 넘어서 현지 주주, 권한 이양, 개발, 공동체 참여까지를 포괄한다. 즉 이는 현지 사람들의 이익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까지 고려한 접근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증거에 의하면, 현지 사람들과 비정부기구(NGO) 사이에 진정한 협력이 있다는 생각은 한참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

생태관광의 옹호자들도 현지의 적대감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해답이 공동체 교육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많은 현지 사회가 야생 보호라는 서구 보호론자들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생태관광 디즈니랜드의 배우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날카 파목스 공원의 현지인 루비 더스탠(Ruby Dustan)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땅인 캐나다 앨버타의 스타인 계곡에 대해 그러한 견해를 보여준다. '나는 스타인 계곡을 야생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아빠는 "거기는 우리의 식품 저장실이야"라고 말했었다. ... 일부 백인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어딘가가 야생지역으로 공표되면, 그곳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머릿속의 낭만적 관념을 이루고 있는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음식일 뿐이다'. ...

현지 사회가 생태관광객이 기대하는 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로버트 고든의 연구에 따르면, 남부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겐벡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산족(부시맨)이 약간의 현대적 설비와 용품 — 더 나은 집과 새로운 옷 — 을 요청했을 때, 공원 관리인은 '구경거리로서의 가치에 심각한 금이라도 가는 것처럼' 화를 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연기를 주문 받고 있는 것이다. 같은 공원을 조사하던 수 암스트롱 기자의 지적에 따르면,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생태관광객들이 봤을 때 '그들의 첫 질문은 항상 부시맨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서바이벌 인터내셔널(Survival International)도 그들이 정말 '연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분명히 어떤 부시맨은 생태관광만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연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관광객이 통상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 '보츠와나에서 떨어진 부시맨의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다. 멀리서 몰려오는 먼지 구름은 (관광객) 차량이 도착했음을 말해준다. 사람들은 하던 일이 뭐든 모두 멈추고는 재빨리 티셔츠와 바지와 무명 원피스를 벗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부시맨을 구경거리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학계의 모우포스와 먼트는 '동물원화'라고 부른다.

현지 사람들은 사실 생태관광의 장점에 대해 (그리고 그 장점을 취하려면 결국 '진짜 원주민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 즉 생태관광은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그들이 그에 따른 대가에 적대적인 것 또한 그만큼 분명해 보인다. 케냐의 마사이족은 케냐 야생동물국장이 추진한 이주 계획에 반대했다. 그 이주는 그들을 목축에는 덜 의존하도록 해주겠지만 관광에는 더 의존하도록 만들 것이었다. 1999년 그들은 조지 몽비오트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다. '우리는 관광으로부터 돈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이미 관광객들이 우리 땅에서 천막을 치고 묵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맞다. 그들은 우리에게 수입을 가져다준다. 우리는 케냐 야생동물국로부터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리키 박사(Dr Leaky)에게 이것을 말해줬으면 한다. 우리는 이 관광객들에 의존해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마사이족이며 우리는 목축을 원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공원들과 보호구역들 중 일부는 현지 사회의 엄청난 희생에 기초해 있었음이 밝혀졌다. 케냐의 야생동물 컨설턴트 디나이 버거(Dhynai Berger)는 마사이족이 생존을 위해 방물장수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구역에 대한 수 암스트롱 기자의 말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중요한 구경거리인 부시맨은 사냥이 허용되지만 오직 활과 화살로만 사냥을 해야 한다. '사자는 밤이면 어김없이 그들의 당나귀와 염소를 잡아가지만... 부시맨은 그들을 사냥할 수 없다'.

케이프타운 북부의 카가 카마 보호구역에서, 관광객은 부시맨 그룹이 전통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돈을 주고 볼 수 있다. 관광 외에는 경제적 기회가 거의 없는 부시맨들과 그 사춘기 아이들은 돈을 위해 맨살 옷을 입고 춤을 춘다. 그러나 한 오두막 주인은 그 그룹에 퇴짜를 놓았는데, 이유는 그들이 진품(진짜 원주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에게, 부시맨의 진품 여부는 문제가 아니었다. 모잠비크의 생태관광 프로젝트의 총지배인은 칼라하리 부시맨 몇몇을 모잠비크로 수입하고 싶어 했다. 그는 에디 코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식대로 한다면, 나는 밖에서 몇몇 작은 애들을 여기로 데려올 것이다. 증기기관차에 탄 관광객이 창문 밖으로 코끼리와 코뿔소를 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면 그들은 다른 창문을 통해 허리에 간단한 옷을 걸친 작은 흑인 애들이 독 화살을 들고 뛰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코뿔소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멸종으로부터 구해내듯이, 왜 멸종해 가고 있는 작은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안 되는가.

Eddie Koch, '바로 여기에 꿈의 공원을 세우려 하는 텍사스인', 『전자우편 & 가디언』, 1996년 1월 18일

어떤 사람들은 더 운이 나쁘다. 지금은 태국에 살고 있는 '긴 목으로 유명한' 미얀마 카레니 부족 난민 여성들은 '인간 동물원의 구경거리로서' 사실상 노예로 살고 있다. 긴 목의 여성을 방문하는 일정은 코끼리 타기나 오래된 아편굴 답사 등과 함께 패키지 관광의 일부이다. 그 여성들을 모두 수도 랑군에 이주시켜 관광 명물로 살게 하려다 실패한 계획도 있었다. 세계은행은 1986년에서 1996년 사이에 3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흘루룰루웨-움폴로지(Hluhluwe-Umfolozi) 국립공원

목가적 신화를 성취하고 서구의 소비를 위한 '순수한' 아프리카 경치를 보존하려면, 반드시 그 땅을 인간의 일상 활동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람들을 국립공원 밖으로 이주시켜, 그 공원에는 휴가 때에만 입장할 수 있게 해야 했다.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야생동물 보호는 언제나 폭력과 준-군사작전, (법적) 제재를 동반했다.

환경단체들은 군사적인 밀렵반대 운동에 관여했다. 1989년, 세계야생동물기금은 케냐 정부에 상아 밀렵꾼 단속을 위한 돈을 공급했다. 그 돈은 차보(Tsavo) 국립공원에서 밀렵 단속 작전에 사용되는 다섯 대의 비행기를 가동하는 데 들어갔다. 이후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밀렵꾼에 대한 '강경한' 금지 캠페인은 정찰 비행기, '무장 헬리콥터', 현지 밀렵 감시인을 끌어들여 '사살 명령에 따르는 준군사적인 전투병을 양성했다.' 30명이 넘는 밀렵꾼이 사살되었다. 한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는 그린 피스(Green Peace)보다는 그린 베레모(Green Beret)에 가까웠다'.

벨리즈(Belize)

현지인 아달버트 터커(Adalbert Turker)가 쓴 아래의 시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재규어의 이름으로,
내 약간의 땅도 보호해 주세요.
나비의 은총으로
내게도 약간의 땅을 남겨 주세요
내 친구 히카티 거북(hiccatee)에게도요.
어째서 내가 문제가 된 거죠
최근에서야
환경을 말하면서
인간을 잊은 거죠
재규어의 이름으로
그리고 비비의 이름으로
보호구역에서 약간의 땅을
벨리즈의 남자와 여자에게 남겨 주세요
그리고 일부는 벨리즈의 어린이에게도요.
우리는 보호구역 바깥의 비비와 같죠
가장자리의 가장자리, 그 끝에 있으니까요